

헌법을 알면 시민의 자유와 평등이 보인다

글 장동석 출판평론가, 『기획회의』 편집주간
9744944@hanmail.net



C O N S T I T U T I O N

『헌법의 발견』은 한국 사회에서 헌법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헌법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책이다. 사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법 자체를 이해의 대상이 아닌 “ 지켜야 할 대상 ”으로 여긴다. 준법정신을 통해 사회를 통치하고자 했던 권위적 정부의 의도 때문인데, 이런 이유로 헌법이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지 배울 기회가 우리에게 없었다. 알지 못하면 무관심한 법. 이 틈을 비집고 특정 세력이 헌법을 독점하면 국가 정체성마저 왜곡되고 “주권을 비롯한 국민 권리가 훼손되는 결과”를 낳는다. 최근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는 건국절 논란은 결국 헌법의 가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결과인 셈이다.

그렇다고 헌법을 달달 외우는 것이 이 능사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 속 지금 ‘나’의 삶을 능동적으로 변화시켜나가는 적극적인 행위”로 인식하는 일이다. 저자는 플라톤의 『법률』,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통해 대한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릴 적 마르고 닳도록 외웠던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의 내용이다. 헌법은 한 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법칙으로, 국가통치체제와 기본권 보장을 핵심으로 한다. 당연히 하위 법들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해석되고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늘날 헌법은,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듯, 존재 의미 자체가 상당히 훼손되고 있다.



헌법의 발견_ 박홍순



헌법_ 이국운



역동적 자유_ 스티븐 브라이어

국 헌법 1조 1항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어떤 의미인지를 살핀다. 그런가 하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등을 통해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등 다양한 영역의 자유, 즉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설명한다.

사실 국내 출간된 책 중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가장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책은 책세상 출판사의 비타 악티바 시리즈 중 한 권인 『헌법』이다. 저자인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헌법을 연구하는 법학자로 “헌법의 본질에 대한 질문은 곧 그 헌법과 관련된 권력의 정당성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고대 그리스부터 성리학적 기반 위에서 예와 법의 정치사상을 발전시킨 동북아시아의 역사, 16세기 헌정주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헌법에 관련한 역사를 개괄한다. 특히 정치가 시장에서 소비

되는, 이른바 “자유와 민주가 비대칭적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헌법이 서야 할 새로운 자리를 모색한다. 새로운 자리이지만 원래부터 그랬어야만 했던 자리다. 제왕적 통치자가 아닌 다중의 시민이 구성하는 권력, 즉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헌법 제1조의 의미를 다시 세우려는 것이다.

『역동적 자유』는 미국의 연방대법관 스티븐 브라이어가 쓴 책으로 “헌법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답변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다양한 질문, 이를테면 “헌법은 ‘문구대로, 쓰인 그대로 해석되어야 하며 그 이상의 해석은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가?’하는 질문 등을 통해 판사의 자의적 해석과 이어질 사법 독재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다. 저자는 1994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대법관에 임명된 ‘자유주의 계열’의 대법관으로 실용주의

노선을 취하며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는 미국 헌법을 문언적 해석이 아닌 “역동적 자유”를 통해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역동적 자유란 “시민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민주주의를 선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독특한 형식의 자유”이다. 어차피 문언적 해석만으로 한계가 있다면 역동적 자유를 통해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의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은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실상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헌법에 대한 더 많은 담론이 생성되고 토론의 장이 형성된다면 정치의 지향에 따라 표류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다시금 각성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1조 1~2항의 천명을 명실상부하게 만드는 일이다. **민주리**